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 행복의 미래를 열다

‘군민 중심, 행복 진안’ 목표 지역발전 초석 숙원사업 해결

진안군은 2025년 한 해 동안 ‘군민 중심, 행복 진안’ 구현을 목표로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농어촌의 해법을 모색하며 자연 자원의 가치를 활용하고 지역발전의 초석이 되는 숙원사업을 해결했다.

♣ 삶의 질로 증명된 행복 농촌과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도전

▲ ‘문화·공동체’ 분야 1위 등 삶의 질로 증명된 행복 농촌 = 진안군은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실시한 ‘농어촌 삶의 질 지수’ 평가에서 전국 3위라는 눈부신 성과를 달성하며 명실상부 ‘행복 농촌 진안’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이는 인구소멸 위기에 맞서 지속 가능한 농어촌의 해법을 모색하고, 천혜의 자연 자원 가치를 높이며 지역발전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 온 노력의 결실이며, 특히 ‘문화·공동체’ 분야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해 군민 간 유대감과 활발한 공동체 활동을 통한 삶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을 입증했다.

또한 ‘환경·안전’ 분야에서 2위를 달성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청정 진안의 강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11위를 기록하는 등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군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균형 있는 성과를 창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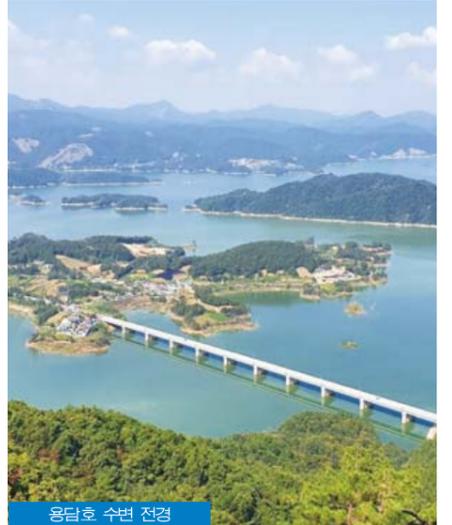
▲ ‘기본사회 국회입법박람회’ 주거복지 지방정부 우수정책 발표 = 군민의 안정적인 삶의 터전 마련을 위해 주거복지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2025년 최초로 실시된 국회입법박람회에서는 진안군민의 차별화된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한 모범 사례로 주목받았으며, 이는 지역 맞춤형 주거 정책의 중요성을 대외에 알리고, 진안군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 오랜 숙원 해결 압박 지역발전의 걸림돌 제거 기사회환

▲ 용담호 ‘수변구역 해제’ 환경부 최종 고시 만 남겨 = 20년간 진안군의 발전을 가로막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용담호 수변구역 일부 해제가 2025년 마침내 그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진안군은 중앙 정부 및 유관 기관과의 끈질긴 협의와 설득을 통해 환경부의 심의 절차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으며, 현재 환경부의 최종 고시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이는 군민들의 재산권 회복은 물론, 친환경적인 개발 여건을 마련하며 용담호 주변 지역의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균형 잡힌 개발과 보존을 동시에 추구하며 얻어낸 값진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국회 입법박람회



용담호 수변 전경

농어촌 삶의 질 지수 전국 3위 행복 농촌 진안 위상 확고히 기본사회 주거정책 비전 ‘주목’ 수변구역 해제 최종고시 눈앞 군민 염원 산림치유원 개원 물 문화포럼 통해 물의 가치 확산 스마트팜 착공... 미래농업 시작

♣ 청정 자연을 활용한 치유·관광 산업 육성

▲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원’ 성공적 개원 = 오랫동안 진안군민의 염원이었던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원이 2025년 성공적으로 개원했다. 진안고원의 청정원 산림 자원을 활용한 치유원은 국민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명소가 급부상하고 있다.

전문적인 치유 프로그램과 지역 특색을 살린 ‘진안형 숲 치유’는 진안군을 대한민국 ‘생태 건강 치유도시’의 중심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 ‘물 문화포럼’ 개최를 통한 물의 가치 확산 = 진안군은 용담호라는 풍부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물의 가치와 중요성을 조명하는 ‘물 문화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물의 보존과 현명한 이용 방안을 논의하고 물 관련 산업 발전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진안군이 물 관련 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알렸다.

♣ 군민 건강과 화합을 위한 체육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 ‘반디비 체육센터’ 준공으로 모두가 함께 하는 체육 환경 조성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반디비 체육센터’



산림치유원 개원

♣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공단지 인프라 확충으로 산업 기반 고도화

가 올해 준공됐다. 이는 모든 군민이 차별 없이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진안군의 포용적 복지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 성과, 지역경제 활력의 새 전환점 마련 = 2025년 한 해 동안 총 11개의 전국 규모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며 스포츠 마케팅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다. 대회 기간 동안 연인원 1만 4,510여명의 선수단 및 관계자들이 진안을 방문해 지역 곳곳이 활기를 되찾았으며, 체류형 소비 증가로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이번 대회 유치를 통해 약 32억1,488만 원에 달하는 경제효과를 창출하며 총 사업비 대비 4배 이상의 경제적 효율성을 기록해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매우 높은 투자 대비 효과를 입증했다.

이러한 성과는 지역 숙박업·외식업·소상공인 매출 증가, 지역특산물 소비 촉진 등 직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스포츠 대회를 통한 지역발전 모델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공단지 인프라 확충으로 산업 기반 고도화

▲ ‘진안고원 스마트팜 착공’ 및 ‘시설원예자



진안고원 스마트팜 착공

동시스템’ 구축 = 미래 농업을 이끌 ‘진안고원 스마트팜’이 2025년 착공돼 고부가가치 농업 생산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첨단 ‘시설원예 자동 시스템’ 도입을 통해 노동력 절감과 생산 효율 증대를 이뤄내며 진안군 농업의 스마트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청년 농업인 유입 및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 ‘홍삼한방·연장’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동시 국비 반영 = 양 농공단지의 큰 애로 사항이었던 공장폐수 처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구축 관련 예산이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모두 반영됨으로써,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과 법적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농공단지 전반의 운영 효율성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친환경 산업 인프라 확충은 기업 유치 여건 개선과 지속가능한 지역 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안정적인 주거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청소년 기반 강화

▲ 따뜻한 보금자리, 주거복지 대폭 확충으로 삶의 만족도 제고 = 군민의 안정적인 주거 환

경 조성을 위해 2025년에도 주거복지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농촌 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18세대), 백운면 행복주택(12세대), 성수면 행복주택(12세대)이 준공되어 주거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으며,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30세대)이 착공되어 젊은 세대의 진안 정착을 돕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 미래를 위한 투자, 맞춤형 교육 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희망을 키우다 = 관내 학생들의 진로 설계 및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입시 컨설팅을 제공했으며, 그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했다.

인문계고의 대학 진학률은 83.8%에서 84.4%로, 특성화고 취업률은 58.0%에서 64.7%로 각각 향상되었고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95% 이상이 높은 만족감을 표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거기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진안형 단계별 특화교육’을 운영하며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 양성에 힘썼다.

▲ 꿈을 발견하고 재능을 펼치는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기능 보강 =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해 쾌적하고 다양한 활동 공간을 제공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